

# 반도체

## The Future of Wearable Tech. - 다가오는 신세계

2013. 5. 22

반도체  
Analyst 김지웅  
02.3779-8808  
jwkim@etrade.co.kr

###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스마트 워치 & 스마트 글라스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올라설 때마다 그리고 필드에서 클럽을 선택할 때마다 홀컵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캐디를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글라스'의 네비게이터가 지금 당신의 위치를 GPS로 체크하고 홀의 평면도와 홀컵까지의 방향성, 거리, 각도를 증강현실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팔목에 찬 피트니스 팔찌 '아미고(Amiigo)'는 실시간 당신의 운동량을 체크하고 혈중산소량과 맥박, 체온,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하여 스마트폰에서 보여주고 그 간의 레코드를 데이터로 보여준다. 그 밖에 수시로 최근 수면 활동과 혈압, 혈당에 대한 체크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오늘부터 건강 관리해야지!' 하고 일주일도 채 지키지 못하는 애달픈 되풀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스마트폰 보다 더욱 상업적 용도로 다양한 산업 혁신을 가져올 Wearable Technology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역시 체험용 모델 가격 1500불(약 170만원)에 달하는 '구글 글라스'다. 아마 곳곳에서 'ok glass!' 로 시작하는 'take a picture', 'record a video' 등의 명령어를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구글 글라스'가 내년 하반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sup>1</sup> 향후 시계 등 팔찌 타입과 안경 타입의 Wearable Tech. 디바이스의 경우 앞서 예를 들었던 헬스케어와 위치기반서비스, 미디어, 교통, 생산현장, 의료, 교육, 광고 등 무궁무진한 상업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미 의회가 '구글 글라스'가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이른바 '빅 데이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애플과 구글이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Wearable Technology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으며 양사에 대한 긍정적 관점뿐만 아니라 센서, GPS, 카메라, 디스플레이, SNS, 스토리지 및 기타 연관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 피트니스 팔찌 아미고 (현재 제품생산 자금 마련 중)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구글 글라스의 상업적 용도-GPS, 치안, 의료, 광고 등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sup>1</sup> <http://www.youtube.com/watch?v=6BTCot8ajbi> 'How it feels through glass-Google Glass Official Promo. 20/02/2013' 영상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지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부류